



만성설사나 심각한 증상 보이면 병원으로



우리 댕댕이가 혈변을?...

케이지 이용·목줄 등 펫케어 지켜야 설사병의 70~80%, 과식이나 스트레스 급성설사 하루 정도 금식하면 호전 산책로써 캄필로박터균 등 감염 조심

"보리엄마! 보리 병원에서 막 돌아다니면 안돼요." 하루에 두세 번은 들리는 소리다. 보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야 심분 이해가 되지만 이곳은 엄연히 병원이다. 건강한 댕댕이들 보다 아픈 아이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교차 감염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병원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닦고 다니더라도 100% 완벽은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댕댕이들은 여기저기 활고 다니는 데는 선수들이 아닌가? 감염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과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이다. 그러니 병원에 방문할 때는 케이지를 이용하거나 그

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안고 있기를 권고한다. 중형견 이상의 강아지는 리드줄을 짧게 해 타인 또는 다른 강아지로부터 거리를 두고 대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동물병원에서 귀병, 피부병, 설사병 질환들은 가장 많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질병이다. 오늘은 그중에 설사병에 대해 알아보자.

설사의 사전적 의미는 '변에 포함된 수분의 양이 많아져서 묽은 똥을 뉘. 또는 그러한 증세'이다. 설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의 감염, 무분별한 식이섭취, 음식 알레르기 등의 위장관 질환에 의해 기인한다. 하지만 때때로 요독증, 간 질환, 부신피질기능저하증과 같은 위장관 이외의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설사의 근원에 따라 대장성 설사와 소장성 설사로 구별을 하는데,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변이 배출되기 전 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성 설사의 주된 특징은 점액변과 배변빈도가 증가하고 대변량은 소량이며 혈변을 보이기도 한다.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체중감소는 거의 없다. 원인으로는 식이적인 원인과 스트레스, 기생충감염, 장 중첩,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한다.

소장은 효소 분비를 통한 소화와 영양분, 수분, 전해질의 흡수작용을 한다.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는 물론 영양분등의 흡수를 못함으로 배변량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며 물기가 많은 변을 보

게 된다. 또한 흑색변이 관찰되기도 한다. 원인으로 바이러스 감염, 대사질환, 이물, 종양 등이 있다.

급성설사를 하는 경우 개가 아파보이지 않고 탈수가 없을 경우 24시간 정도 금식을 시키면 대부분 효과적이다. 이후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주고 점진적으로 원래의 식사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설사나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찾아 여러 가지 실험실 진단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한다.

▷심한구토 ▷설사를 자주하고 변이 아주 무를 때 ▷열이 심할 때 ▷심하게 냄새나는 혈변 ▷변이 검거나 어두울 때 ▷우울과 무기력 ▷통증호소 ▷아주 어리거나 노견일 경우 ▷기존 질환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는 70~80%의 설사병 강아지들은 과식 혹은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설사병으로 오는 경우이며, 대부분 대증요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다. 산책을 자주하는 댕댕이들의 경우 산책로에서 종종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등에 감염되기도 해 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이 두균은 점액성 혈변을 보이며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인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이별의 정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슬픈 장면, 이를테면 울기 딱 좋은 장면들 앞에서 나는 잘 울어지지 않는다. 경험상 정교하게 가공된 슬픔의 세계는 나를 잘 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나의 눈물은 자주, 빠르게 작동 되어진다. 다친 고양이를 우연히 보았을 때, 어린 아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뛰기 시작할 때 또는 추억 속에 누군가가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선명한 기억으로 찾아올 때 나는 기뻐했다는 듯 울기 시작한다.

얼마 전 텔레비전이 나를 울렸다.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 평평 울어버렸다. 최근 2부작으로 방영된 다큐멘터리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를 보면서였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은 20대의 청년들이다. 그 또래의 친구들처럼 밝고 해사한, 치어리딩 동아리를 함께 하는 건강한 육체를 지닌 젊은이들이다. 새로 산 공처럼 튀어 오르는 이 젊은이들은 장례지도 학과의 대학생들이다.

화면 속에서 '죽음을 다루면서 삶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 친구가 이야기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또 다른 친구들은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다정한 시간을 선물했다. 눈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친구는 요양원을 선택한 자신의 할머니를 찾아가 우리장을 사이에 두고 눈을 깜박이며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 장면에서 내 눈물이 터져버렸다. 세상을 떠난 나의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내가 티비를 보던 소파 옆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티비에서 나오는 소리에 우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지더니 내 울음 소리가 그 소리들을 덮어 버렸다.

화면 속 친구들이 말해줬다. 응원의 몸짓을 담은 치어리딩을 마치고 나면 보는 이들이 고맷다, 좋다고 말해주는 순간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이다. 그리고 죽음을 역시 치어리딩처럼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 같다고도 이야기해줬다. 세상을 떠나는 이의 마지막을 곁에서 돌보는 일, 그 어려운



영화 '프랑스 여자'의 주인공 미라.

직업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밝은 미소가 나를 영영 올려 버렸다.

죽음을 다루는 영화들은 많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환자의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들이 생각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에 아파하는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도 떠오른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하게 좋아해 온 작품 역시 다큐멘터리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처럼 죽음을 다루는 이가 주인공이다. 웰리스트였던 한 남자가 남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줄거리의 영화 '굿,바이'다. 제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다카타 요지로 감독의 작품인 '굿,바이'에는 삶과 죽음이 만나는 순간들이 선율처럼 흐른다. 삶의 마디에 스며드는 죽음의 순간들을 경건하고 영롱하게 연주하는 이 작품은 슬프지만 아름답다는 말을 영화적으로 구현해내는 수작이다.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한 이 영화는 올해 마지막 날, 재개봉 된다고 한다.

'너의 장례식을 응원해'의 또다른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무연고자의 죽음에 예를 다해 배움을 하는 장례지도사들의 세심한 손길을 담은 장면이었다. 유족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유족중산'에서 남겨진다고 한다. 장례지도사들은 그 고독한 환자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죽음이 묻히는 이별의 정원

에서 다시 피어날 새로운 소망이 반드시 육체의 탄생이라는 가시적 행위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람을 느낀다고 말이다. 그리고 죽음을 역시 치어리딩처럼 누군가를 응원하는 일 같다고도 이야기해줬다. 세상을 떠나는 이의 마지막을 곁에서 돌보는 일, 그 어려운

<김영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축
CONGRATULATIONS

수 상

2020.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 금상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동휘(소방청)
부:김영수(前 제주도청 부이사관) · 모:송영순(명원 대표이사)

형제자매 일동
(김보경, 보운, 미정, 소형, 성환)

축
CONGRATULATIONS

합 격
건축사 공인중개사

김경환 송윤영 부부
부: 김연중(한림 삼일식당) · 모: 양정희

2020년 건축사,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머니 형제자매 일동
(정열, 세웅, 세우, 세준)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무총리표창

김정심
(바르게살기운동 아라동위원장)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양박씨청계공파제주도종친회 산지종친 사촌형제 일동
(경진·경춘·문엽·경돈·故문찬·상대·용규·경민·故경수·경화·경인·경옥·경호·경배)